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유아의 성과 기질이 유아의 부적응행동에 미치는 영향

Influences of Sex, Temperament, and Maternal Attitudes on Children's Maladjustment Behavior

전남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과
석사과정 류현강
교수 이숙

Department Family Environment & Welfar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student : Ruy, Hyun-kang

Professor : Lee Sook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논의 및 결론 |
| II. 연구 방법 및 절차 | 참고문헌 |
| III. 연구결과 | |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children's maladjustment behavior as related to sex, temperament, and the mother's maternal attitudes, and to characterize the relative influence of these variables on the maladjustment behavior of 3-5 year old children in early child education centers. The subjects were recruited from Gwangju City, and included 217 mothers, and the teachers of their children. Statistical analyses were conducted using SPSSWIN(12.0) for Cronbach's alpha,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1.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existed in the maternal overprotective attitude group with regard to anxiety and withdrawal behaviors. 2. Boys evidenced more aggression, inattention, impulse, and anxiety behaviors than did girls. 3. The activity and adaptation factors of temperament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Increasing activity was associated with increasing aggressive behavior. Increasing adaptation was associated with higher levels of distraction. 4. In terms of maladjustment behaviors in the aggregate, the sex of the children appeared to be the most salient influencing factor, and the activity factor of children's temperament also exerted a significant influence, explaining 13% of maladjustment behavior.

주제어(Key Words): 어머니의 양육태도 (maternal attitude), 기질(temperament), 부적응행동(maladjustment)

I. 서론

유아기는 인간 발달에 있어서 기본 토대를 형성하는 결정적인 시기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시기의 적응과 부적응 행동은 이후 발달에 매우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최근 들어 유아 가정에서 떠나 또래들과 생활하게 되는 조기교육기관에 취원하는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어린 영유아의 적응 문제가 주된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여성가족부의 영유아보육정책 보육통계(여성가족부, 2005) 자료에서는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 수가 99만 명, 전체 영유아수의 31%에 달한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유치원에 재원 중인 약 55만명의 유아수(교육인적자원부, 2005)와 사설 유아교육기관에 재원 중인 유아수까지 포함하면 대부분의 유아들이 일찍부터 가정 이외의 장소에서 또래들과 적응해야 하는 발달과업에 직면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들은 가정을 떠나 최초로 교사, 또래들과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집단에 참여하고 소속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유아교육기관에 입학하면서 유아는 부모와 격리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 낯선 사람과 상황에 적응하는 문제 등에 직면하게 되며, 또래 및 집단관계에서의 규칙준수, 사회화 요구 등의 적응으로 인해 신체적, 언어적, 물리적 제약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에서 적응을 잘 하는 유아들은 건강하게 발달해 가지지만 그렇지 못한 유아들은 여러 가지 긴장과 불안을 경험하는 등 부적응행동을 많이 나타낼 수 있다.

유아의 부적응행동이란 주어진 환경에 적응을 못하고 갈등과 욕구 좌절이 일어나며, 사회집단의 기준에 순응하지 못하거나 사회 문화적 기대치에서 이탈된 행동을 부적응행동(김동극, 1980)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부적응행동의 대표적인 현상으로 신체적 공격행동이나 과잉활동 및 위축행동, 불안행동 등을 들 수 있다. 한 학급에 적어도 1~2명 정도의 부적응행동 유아가 있었다는 연구결과(김현정, 2000)와 요즘 들어 ADHD, 공격적 행동, 반응성 애착장애 등과 같은 부적응행동 문제들로 소아정신과나 아동상담기관을 찾는 내담자가 증가하는 현상들은 유아의 부적응행동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더욱이, 유아의 부적응은 유아기에만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기보다는 이후의 성장과 더불어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비행이나 부적응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등 장기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Wolfe, Scott 와 Wekerle(2003)은 유아의 부적응행동 문제를 유아기에 해결하지 않고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해결할 경우 표면상의 행동수정은 가능할지라도 이미 습관화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그 효과도 미흡하다고 보고하

였다. 또한 유아기 때 문제행동을 보인 50% 이상의 유아가 청소년기나 초기 성인기에 정신병리학적 증세나 범죄를 일으켰다는 연구 결과(Koot, Van Den Oord, Verhulst, & Boomsma, 1997)와 부적응행동 현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지 않으면 상급학교에 진학해서 뿐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연구 결과(서대선, 1982) 등은 유아기의 부적응행동의 장기적인 영향을 지적하고 있다. 이렇듯 유아의 부적응행동이 증가하고, 그 장기적인 영향의 심각성이 보고됨에 따라 유아의 부적응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들이 점차 늘어가는 추세이다.

이러한 부적응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크게 환경적 요인인 부모의 양육태도와 개인적 요인인 성과 기질로 설명할 수 있다. 유아는 출생부터 대부분의 시간을 가정에서 보내게 되기 때문에 부모, 특히 주 양육자인 어머니로부터 세계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성격형성과 사회화의 기초를 마련하게 되며 사회적 능력을 습득해 나가게 된다(Belsky & Vondra, 1993; Mattanah, 2001). 유아기는 어머니로부터 받는 영향이 일생 어느 시기보다 중요하고 직접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부모의 잘못된 양육태도나 부모의 지나친 기대로 인한 좌절감 등은 유아가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하고 부적응행동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고 한다(유영의, 1995; Hallahan & Kauffman, 1978). 구체적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부적응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들을 살펴보면, 부모의 비일관적이며 거부·통제적 양육태도가 아동의 부적응행동, 특히 공격성과 연관되어 있다고 하였고(Lindahl, 1998; Rubin, Hastings, Chen, Stewart, & McNichil, 1998), 허용적인 양육태도를 사용한 어머니들의 자녀는 문제 있는 행동을 보이거나 공격적인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였다(Baumrind, 1968). Martin(1981)의 연구에 의하면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수용적이지 못할 때 남아는 여아보다 반항적이 되고, 새로운 사물에 대한 호기심이 적어지며, 낯선 사람과도 친해지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권위주의적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태도는 자녀들이 심리적 갈등을 많이 일으키고, 화를 잘 내거나 두려워하고, 걱정을 많이 하며, 학교에서 공격적인 문제해결 성향과 공격적인 행동을 예측하게 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Pettit, Harrist, Bates, & Dodge, 1991). 통제적인 양육태도는 자녀의 성격형성에 적대감, 거부, 정서적 무반응과 불안정, 부정적 세계관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Khaleque & Rohner, 2002). 또한 Wolfe 외 2인(2003)은 아동 학대와 청소년기 이성문제 연구를 통해서 유아기 때 누적된 통제적 양육경험이 친밀한 이성 관계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정서적 동요, 학대 등 많은 문제를 나타낼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유우영(1998), 장은혜

(2000) 등은 과잉보호적이고 거부적인 양육태도를 취하는 어머니의 유아는 유치원 적응을 잘 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오승연(1993)은 자녀의 공격적 행동과 과잉행동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통제적, 모순 불일치적, 거부-냉담적, 성취 압력적 태도를 취할 때 유의미한 상관성이 있어 부모 양육태도와 아동의 부적응행동간에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반면에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적응 간에는 유의한 상관성이 없다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는 연구(김영희, 1996; 김인순, 1991; 원영미, 1990)들도 있어서 좀 더 심층적인 연구가 요구된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유아의 성과 기질이 부적응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부적응행동에 대한 남아와 여아의 성차를 보고 하는 대부분의 연구들은 남아가 여아에 비해 적응 능력이 부족하고 부적응행동을 일으키는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Davies와 Windles(1997)는 남아와 여아의 적응행동 문제의 표현에 있어서 남아가 여아보다 외면적인 부적응행동을 더 많이 표현하는 특성이 있다고 지적하였고, Klein(1982), Hughes, Pinkerton과 Plewis(1979)의 연구에서도 유아의 성별에 따라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적응에 차이가 나타나 남아가 여아에 비해서 부적응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원영미(1990)는 남아가 여아에 비해 입학초기에 유치원에서의 적응력이 낮다고 하였고, 윤주하와 이종희(1999)의 연구에서도 유아의 문제행동에 성차가 있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또한 성별에 따라서 전체적인 사회성과 사회성 하위요인 중 사교성, 자제성, 계획성, 책임성, 협동성, 자기표현성, 경쟁에서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여아가 남아보다 사회성이 높게 나타났다고(고명순, 1997)고 보고되기도 하였다. 이렇듯 유아기에는 성에 따른 부적응행동에 있어 남아가 여아보다 부적응행동이 많다고 보고되는 경향이 있기는 하나, 부적응행동의 여러 하위요인에서 어떻게 차이 나는가에 관한 연구결과는 미흡한 실정이다.

한편, 부적응행동의 원인이 되는 생리적 요인인 기질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결정된 개별적 성향으로써 기질이나 행동유형에 따라 부적응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아의 기질의 하위 범위 중 지속성, 접근성, 반응강도는 유아의 유치원 부적응행동과 정적 상관성이 있었으며, 활동성은 학교 입학시 적응과 상관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Garrison, Earls & Kindlon, 1984; Klein, 1980). 또한 Dunn과 Kendrick(1980)은 기질의 하위 범위 중 높은 반응강도, 부정적인 기분상태를 가진 유아들이 유치원에서 걱정, 불안 행동을 더 많이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Mobly와 Pullis(1991)는 높은 반응성, 낮은 리듬성, 낮은 지속성을 나타내는 유아들이 학교입학시 부적응행동을 더 많이 나타낸다고 지적하였다. Berk(1997)는 활동성이 높은 유아가

덜 활동적인 유아보다 갈등을 더 많이 일으키며, 정서적으로 민감한 유아들은 흥분을 잘하고 또래로부터 물건을 잘 빼앗기며, 친구들에게 잘 얻어맞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서수경(1993)은 기질의 하위 범주 중 낮은 적응성, 높은 반응강도, 높은 활동성의 유아가 유치원에서 공격성, 불안 등의 부적응행동을 많이 보인다고 하였다. 정현희와 최경순(2001)은 울음, 공포, 분노 등의 반응을 포함한 정서성이 높은 아동이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산만한 행동을 보이며, 높은 활동성을 가진 아동들은 과잉행동을 더 많이 보인다고 하였다. 박은영(2000)은 과활동성, 높은 주의분산도, 높은 반응역을 보인 유아일수록 어린이집에서 공격성, 과잉행동, 산만 등의 부적응행동이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이렇듯 유아의 기질은 다양한 하위요인으로 구분되며, 이 하위요인에 따라 부적응행동의 다양한 영역에서 차이가 난다는 연구들은 많이 보고되어 있으나 활동성의 영역에 대한 결과들에서 보듯이 그 결과가 상반되는 경우도 있어, 기질의 하위요인별로 부적응행동의 하위 요인과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제기해 준다.

한편, 유아기는 아동이나 청소년기에 비해 개인의 고유한 특성이 환경의 영향보다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유아의 부적응행동에 환경적 변인과 개인적 변인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또 구체적으로 어느 변인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지를 비교하는 것은 유아의 부적응행동을 예측하고 개선하는데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유아들은 부적응행동의 여러 측면을 동시에 나타내는 경우보다는 어느 한두 요인에서 두드러지게 부적응행동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유아의 부적응행동에 대한 지도도 부적응행동의 하위요인별 영향력있는 변인이 무엇인지를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실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용한 접근방식이라 생각된다. 이에 유아의 부적응행동은 전체적으로 분석하는 것 못지않게, 하위요인별로 분석하여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대부분의 국내연구는 유아의 부적응행동에 미치는 환경적 변인과 개인적 변인의 영향력을 각각 보고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고 유아기의 부적응행동의 하위요인에 대해 어느 변인이 더 설명력을 갖는지에 대해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유아의 부적응행동이 유아의 현재 발달뿐 아니라 장기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중대함을 고려해볼 때, 유아의 부적응행동 하위 요인에 따라 어떻게 차이 나게 그 영향력이 나타나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는 상당히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유아기의 환경변인으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고되어 온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선정하고, 유아의 개인적 변

인으로 유아의 성과 기질을 선정하여 이러한 변인들이 유아의 부적응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부모와 교사들이 유아의 부적응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적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유아의 성과 기질에 따라 유아의 부적응행동에 차이가 있는가?
2.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유아의 성과 기질이 유아의 부적응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보육시설 또는 유치원에 재원중인 만 3세~5세 유아로, 광주광역시의 5개구 행정지역별로 각각 1개의 시설(어린이집 2곳, 유치원 3곳)을 표집한 후, 연구대상 유아의 담임교사와 어머니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조사방법으로는 질문지법을 사용하였는데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어머니가 응답하도록 하였고, 유아의 부적응행동은 교사가 평정하도록 하였다. 2006년 6월 26일부터 7월 21일까지 설문지를 배포·수거하였으며, 연구대상 유아 360명 중 217명의 자료만이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대상 유아의 성별은 남아가 109명(50.2%), 여아가 108명(49.8%)이었으며, 연령은 만3세가 44명(20.3%), 만4세가 88명(40.6%), 만5세가 85명(39.2%)였다.

2. 측정도구

1) 양육태도검사

박성연과 이숙(1990), Block(1984)의 CRPR(Child Rearing Practices Report), 유우영(1998)의 측정도구 등에서 유아의 부적응행동과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는 애정, 거부, 과보호, 일관성의 4개 하위척도를 선정하여 본 연구 대상자의 연령에 맞게 문항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애정 7문항, 거부 8문항, 과보호 7문항, 일관성 7문항으로 총 2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별 반응양식은 5점 Likert 척도로써,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부터 '매우 그렇다'에 5점까지 어머니가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역산 문항은 역으로 환산하여 점수를 계산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각 요인별 양육태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본 측정도구의 양육태도 하위변인별 문항수 및 신뢰도계수(Cronbach's α)는 <표 1>에 정리하였다.

2) 유아의 기질검사

유아의 기질을 알아보기 위해 PTQ(Parent Temperament Questionnaire; Thomas & Chess, 1977)와 RITQ(Revised Infant Temperament Questionnaire; Carey & McDevitt, 1978)를 기초로 천희영(1993)이 만3세에서 7세까지의 우리나라 유아들을 대상으로 개발한 연구 도구를 수정·보완하였다. 원 척도는 총 33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나, 신뢰도가 지나치게 낮아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 적응성 문항과 중복되는 문항을 제외하고, 활동성 6문항, 반응성 5문항, 적응성 8문항, 생리적 규칙성 7문항으로 모두 4개의 하위변인으로 구성하였으며, 총 26문항으로 유아의 기질을 검사하였다. 각 문항별 반응양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 어머니가 반응하도록 되어 있다. 역산 문항은 역으로 환산하여 점수를 계산하였다. 각 하위요인 별 점수의 의미는 활동성은 점수가 높으면 신체적 움직임이 활발함을 의미하며, 반응성의 점수가 높으면 자극에 대한 민감한 정도와 반응이 강함을 의미하고, 적응성의 점수가 높으면 새로운 자극이나 변화에 대한 적응도가 높음을 뜻하고, 생리적 규칙성의 점수가 높으면 수면이나 식사 등에 관련된 생리적 기능의 규칙적인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측정 도구의 하위변인별 문항수 및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표 1>에 정리하였다.

3) 유아의 부적응행동검사

유아의 부적응행동을 진단하기 위해 사용한 검사도구는 Achenbach(1978), Behar와 Stringfield(1974), Burks

<표 1> 측정도구별 문항수 및 신뢰도 계수

측정변인		문항수	Cronbach's α
양육태도	애정	7	.89
	거부	8	.89
	과보호	7	.83
	일관성	7	.72
기질	활동성	6	.72
	반응성	5	.69
	적응성	8	.90
	생리적규칙성	7	.76
부적응행동	불안	8	.87
	위축	8	.92
	산만	8	.94
	공격	8	.93
	충동	5	.93
	전체	37	.94

(1996), Quay(1972)의 질문지를 참고하여 구성된 박현주(2004)의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원 척도는 총 47문항으로 구성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문항 내용이 중복되거나 적합하지 않다고 평가되는 10문항을 제외하고, 불안 8문항, 위축 8문항, 산만 8문항, 공격 8문항, 충동 5문항, 총 37문항으로 '유아의 부적응행동 척도'로 구성하였다. 유아의 부적응행동 질문지 채점 방법은 유아의 담당교사가 질문의 내용이 유아의 행동과 같은가, 다른가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 반응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부적응행동 정도가 심하다고 볼 수 있다. 하위변인별 문항수 및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표 1>에 정리하였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12.0 Program을 사용하여 연구대상유아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로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검사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기질에 따라 유아의 부적응행동에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하기 위해서 일원분산분석, 성에 따른 부적응행동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증으로 Scheffe의 다중비교검증을 실시하였다. 이외에 유아의 부적응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유아의 성과 기질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후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유아의 기질과 부적응행동의 일반적 경향

먼저, 어머니의 양육태도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면, 양육태도 하위변인인 애정의 평균은 3.79로 다른 변인들보다 높은 편이었고, 거부 2.77, 과보호 2.59, 일관성의 평균은 3.18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자녀 양육태도에 있어서 애정적이며 일관적인 측면을 거부나 과보호보다 높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유아 기질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면, 기질의 하위변인인 활동성 3.54, 반응성 3.94, 적응성 3.51, 생리적 규칙성 3.74등 모든 하위척도의 평균에서 중간점수(3.00)보다 높게 나타났다. 부적응행동의 일반적 경향은 불안 2.54, 위축 2.44, 산만 2.52, 공격 2.12, 충동 2.12로 하위척도 모두 중간점수(3.00)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불안, 산만, 위축 등의 점수가 공격성이나 충동보다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

2.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유아의 성과 기질에 따른 부적응행동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부적응행동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어머니 양육태도의 하위영역을 각각 $M \pm 1/2$

<표 2>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유아의 기질과 부적응행동 일반적 경향

변인	전체		남(N=109)		여(N=108)		t 값	
	M	SD	M	SD	M	SD		
모의 양육태도	애정	3.79	.63	3.76	.63	3.83	.64	-0.76
	거부	2.77	.66	2.77	.69	2.76	.64	0.08
	과보호	2.59	.70	2.75	.69	2.43	.67	3.42**
	일관성	3.18	.55	3.14	.56	3.23	.54	-1.30
기질	활동성	3.54	.64	3.60	.63	3.48	.65	1.46
	반응성	3.94	.63	3.81	.61	4.08	.62	-3.21**
	적응성	3.51	.74	3.50	.74	3.52	.74	-0.20
	생리적규칙성	3.74	.59	3.76	.62	3.71	.56	0.59
부적응행동	불안	2.54	.71	2.60	.69	2.41	.81	2.06*
	위축	2.44	.80	2.53	.78	2.35	.81	1.68
	산만	2.52	.83	2.78	.84	2.26	.74	4.79***
	공격	2.12	.79	2.35	.82	1.89	.69	4.49***
	충동	2.11	.87	2.35	.89	1.86	.78	4.35***
	총점	2.36	.56	2.54	.55	2.18	.51	4.96***

* $p < .05$ ** $p < .01$ *** $p < .001$

〈표 3〉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따른 부적응행동

(N=217)

독립			종속		부적응행동									
					불안		위축		산만		공격		충동	
변인	구분	N(%)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애정	상	68(31.3)	2.46	.64	2.34	.78	2.36	.74	1.98	.69	1.99	.76	2.25	.47
	중	83(38.2)	2.53	.71	2.48	.76	2.57	.92	2.15	.84	2.12	.94	2.39	.61
	하	66(30.4)	2.52	.78	2.49	.89	2.62	.80	2.24	.81	2.20	.88	2.43	.58
	F			0.21		0.75		1.55		2.39		0.99		2.06
거부	상	68(31.3)	2.51	.77	2.43	.80	2.51	.85	2.21	.81	2.18	.89	2.39	.60
	중	80(36.9)	2.56	.70	2.51	.77	2.62	.81	2.14	.74	2.12	.87	2.41	.55
	하	69(31.8)	2.43	.66	2.37	.84	2.41	.84	2.02	.83	2.02	.84	2.27	.54
	F			0.60		0.54		1.08		1.03		0.63		1.28
과보호	상	60(27.6)	2.65 ^a	.66	2.62 ^a	.75	2.65	.86	2.19	.80	2.20	.89	2.48	.55
	중	96(44.2)	2.53 ^{ab}	.53	2.47 ^{ab}	.82	2.45	.78	2.08	.81	2.10	.89	2.35	.56
	하	61(28.1)	2.31 ^b	.70	2.22 ^b	.79	2.49	.88	2.12	.76	2.03	.82	2.25	.58
	F			3.71*		4.04*		1.06		0.34		0.56		2.60
일관성	상	62(28.6)	2.39	.66	2.28	.76	2.37	.85	2.04	.79	2.05	.86	2.24	.56
	중	95(43.8)	2.56	.74	2.51	.86	2.63	.83	2.18	.78	2.13	.86	2.42	.56
	하	60(27.6)	2.54	.72	2.49	.74	2.50	.80	2.12	.81	2.13	.90	2.37	.56
	F			1.11		1.76		1.78		0.54		0.16		1.97

*p<.05

집단분류 : '상' > M+1/2 SD

M-1/2 SD ≤ '중' ≤ M+1/2 SD

'하' < M-1/2 SD

SD를 사용하여 '상', '중', '하' 세 집단으로 구분하였고, 각 집단에 따라 부적응행동에 차이 분석을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표 3〉). 그 결과, 과보호양육태도 집단에서만 부적응행동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과보호양육태도는 부적응 하위변인 중 불안변인, 위축변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불안 변인에서 과보호 '상' 집단이 '하' 집단보다 불안을 더 많이 느끼고(F=3.71, p<.05), 위축변인에서도 과보호 '상' 집단이 '하' 집단 보다 높은 점수를 보여(F=4.04, p<.05) 어머니가 과보호적 태도를 많이 할수록 유아가 불안과 위축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가 자녀에게 지나친 보호와 간섭을 할 경우 유아가 불안해하고, 걱정이 많으며, 자신감이 없고 위축된 행동 특성을 발달시키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성별에 따라 유아의 부적응행동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표 4〉), 산만(t=4.79, p<.001), 공격(t=4.49, p<.001), 충동(t=4.35, p<.001), 불안(t=2.06, p<.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남아가 여아보다 공격, 산만, 충동, 불안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고, 총점에서도 같은 경향이 있었는데(t=4.96, p<.001) 이는 남아가 여아에 비해 일반적으로 부적응행동을 많이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러나

위축에서는 성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유아의 기질에 따른 부적응행동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기질 하위영역을 각각 M ±1/2 SD를 사용하여 '상', '중', '하' 세 집단으로 구분하였고, 각 집단에 따라 부적응행동에 차이 분석을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었다. 유아의 기질 중 반응성과 생리적 규칙성에 따라서는 부적응행동에서 집단 간 차이가

〈표 4〉 성에 따른 유아의 부적응행동

(N=217)

변인	남(N=109)		여(N=108)		t값	
	M	SD	M	SD		
부적응행동	불안	2.60	.69	2.41	.81	2.06*
	위축	2.53	.78	2.35	.81	1.68
	산만	2.78	.84	2.26	.74	4.79***
	공격	2.35	.82	1.89	.69	4.49***
	충동	2.35	.89	1.86	.78	4.35***
	총점	2.54	.55	2.18	.51	4.96***

*p<.05 ***p<.001

〈표 5〉 기질에 따른 부적응행동

(N=217)

독립			종속		부적응행동									
					불안		위축		산만		공격		충동	
변인	구분	N(%)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활동성	상	63(29.1)	2.59	.72	2.49	.80	2.76 ^a	.75	2.28	.71	2.24	.89	2.51	.53
	중	81(37.3)	2.43	.70	2.35	.82	2.51 ^{ab}	.86	2.18	.80	2.16	.90	2.34	.59
	하	73(33.6)	2.51	.71	2.50	.79	2.32 ^b	.83	1.96	.83	1.93	.80	2.27	.55
	F			1.94		0.76		4.97 ^{**}		2.51		2.34		2.51
반응성	상	67(30.9)	2.47	.70	2.35	.79	2.50	.82	2.18	.81	2.32	.93	2.34	.56
	중	79(36.4)	2.56	.66	2.55	.79	2.43	.78	2.07	.78	2.08	.80	2.36	.57
	하	71(32.7)	2.47	.77	2.40	.83	2.63	.89	2.12	.79	2.13	.89	2.37	.57
	F			0.41		1.24		1.21		0.32		0.08		0.04
적응성	상	68(31.3)	2.43 ^b	.63	2.29 ^b	.72	2.74 ^a	.896	2.33 ^a	.79	2.30	.93	2.43	.55
	중	76(35.0)	2.41 ^b	.78	2.26 ^b	.79	2.45 ^{ab}	.81	2.15 ^{ab}	.82	2.09	.86	2.29	.62
	하	73(33.6)	2.67 ^a	.67	2.77 ^a	.80	2.38 ^b	.80	1.89 ^b	.72	1.95	.79	2.39	.51
	F			3.20 [*]		9.93 ^{***}		3.86 [*]		5.79 ^{**}		2.88		1.18
생리적 규칙성	상	53(24.4)	2.58	.70	2.49	.83	2.61	.78	2.28	.82	2.24	.86	2.45	.56
	중	90(41.5)	2.42	.63	2.33	.78	2.46	.83	2.05	.71	2.01	.82	2.27	.56
	하	74(34.1)	2.55	.80	2.54	.81	2.54	.88	2.09	.85	2.14	.93	2.39	.59
	F			1.20		1.60		0.56		1.52		1.24		2.02

* $p < .05$ ** $p < .01$ *** $p < .001$

집단분류 : '상' > M+1/2 SD

M-1/2 SD ≤ '중' ≤ M+1/2 SD

'하' < M-1/2 SD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은 반면, 활동성과 적응성에 따라서는 유아의 부적응행동 하위변인들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활동성에서는 산만변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적응성에서는 불안, 위축, 산만, 공격변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활동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활동성이 '상'인 집단이 '하'인 집단 보다 산만행동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4.97, p < .01$). 적응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적응성이 '중' 이상인 집단보다 '하' 집단의 불안점수가 더 높게 나타나 적응성이 낮을수록 유아의 불안 행동($F=3.20, p < .05$)과 위축행동($F=9.93, p < .001$)이 더 많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산만변인과 공격변인에서는 '상' 집단이 '하'인 집단 보다 산만 점수($F=3.86, p < .05$)와 공격 점수($F=5.79, p < .001$)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적응성이 높을수록 유아는 산만한 행동과 공격적인 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위축, 불안과 같은 내면화 행동에서는 적응성이 높은 유아, 산만과 공격 같은 외면화 행동은 적응성이 낮은 유아에게 나타나 부적응행동의 양상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였다. 반응성과 생리적 규칙성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3.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유아의 성과 기질이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

1) 상관관계 분석결과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성과 기질과 부적응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했는데 그 결과는 〈표 6〉에 제시한 바와 같다.

먼저 부적응행동의 하위요인들 중 불안은 과보호($r=.15, p < .05$)와 적응성($r=-.15, p < .05$), 성별($r=-.14, p < .05$) 순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과보호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적응성과 성별은 부적인 상관을 나타내었다. 위축 변인에서는 적응성($r=-.23, p < .01$), 과보호($r=.16, p < .05$) 순으로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고, 이중 적응성은 부적인 상관을 과보호는 정적인 상관을 나타내었다. 의존은 과보호($r=.17, p < .05$)만이 유의한 정적인 상관을 나타내었고, 산만은 성별($r=-.30, p < .01$), 활동성($r=.25, p < .01$), 적응성($r=.16, p < .05$) 순으로 성별은 부적상관관계를, 활동성과 적응성은 정적인 상관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공격은 성별($r=-.30, p < .01$), 활동성과 적응성($r=.21, p < .01$)이 같은 점수로 상관관계를 보여 성별은 부적 상관을, 활동성과 적응성은 유의한 정적 관계를 나타냈으

〈표 6〉 어머니의 양육태도, 유아의 성과 기질 및 유아의 부적응행동간의 상관관계

(N=217)

		애 정	거 부	과보호	일관성	활동성	반응성	적응성	생리적규칙성	성 별
부적응행동	불안	-.05	.04	.15*	-.09	.06	.02	-.15*	-.05	-.14*
	위축	-.07	.01	.16*	-.13	-.02	-.01	-.23**	-.06	-.11
	산만	-.07	.04	.06	-.04	.25**	-.05	.16*	.00	-.30**
	공격	-.09	.10	.00	.01	.21**	.04	.21**	.03	-.30**
	충동	-.06	.06	.05	.00	.20**	.02	.17*	.00	-.28**
	총점	-.10	.07	.12	-.07	.19**	.00	.03	-.02	-.32**

*p<.05 **p<.01

며, 충동은 성별($r=-.28, p<.01$), 활동성($r=.20, p<.01$), 적응성($r=.17, p<.05$) 순으로 성별은 유의한 부적상관을, 활동성과 적응성은 유의한 정적 관계를 나타냈다. 부적응행동총점에서는 성별($r=-.29, p<.01$), 활동성($r=.18, p<.01$) 순으로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어 성별은 유의한 부적상관을, 활동성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2) 회귀분석결과

유아의 부적응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성과 기질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7〉). 변인들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선정한 어머니의 과보호양육태도와 유아의 기질중 적응성과 활동성 및 성별이 유아의 부적응행동에 의미 있는 상관관계

〈표 7〉 부적응행동 관련 변인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N=217)

종속변인	예측변인		b	β	F	R ²
	변인	하위변인				
불안	기질	적응성	-.15	-.16*	3.35*	.06
	양육태도	성별#	-.15	-.11		
		기질	과보호	.10		
위축	기질	활동성	.10	.09	4.46**	.08
	양육태도	적응성	-.24	-.22**		
		기질	성별#	-.14		
산만	기질	과보호	.12	.10	9.80***	.16
		기질	활동성	.03		
	양육태도	성별#	-.49	-.29***		
공격	기질	적응성	.24	.19**	9.07***	.15
		기질	활동성	.13		
	양육태도	과보호	.01	.01		
충동	기질	성별#	-.46	-.29***	7.64***	.13
		기질	적응성	.18		
	양육태도	과보호	-.04	-.04		
총점	기질	활동성	.17	.14*	7.97***	.13
		기질	적응성	-.04		
	양육태도	과보호	.01	.01		

*p<.05 **p<.01 ***p<.001

성별#은 가변수(Dummy)화 하였다(남=0, 여=1).

를 가지고 있어 회귀분석에서 독립변인으로 선정하였다.

부적응행동 하위변인에 대한 관련 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불안 변인에서는 과보호적 태도, 활동성, 적응성, 성별 4변인 중 적응성($\beta = -.16, p < .05$)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4개 변인은 불안의 6%를 설명하고 있었다. 위축 변인에서는 적응성($\beta = -.22, p < .01$)만이 유의한 영향력이 있는 변인으로 나타나 설명력은 8%로 나타났다. 즉, 적응성이 낮을수록 불안과 위축이 높게 나타났다.

산만변인에서는 4변인 중 성별($\beta = -.29, p < .001$), 활동성($\beta = .19, p < .01$) 순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여아에 비해 남아가, 활동성이 높을수록 산만한 행동을 더 많이 보임을 알 수 있고, 산만을 예측해주는 변인의 설명력은 16%로 나타났다.

공격변인에서는 성별($\beta = -.29, p < .001$), 적응성($\beta = .17, p < .01$), 활동성($\beta = .14, p < .05$) 순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여아에 비해 남아가, 새로운 환경이나 자극에 적응을 잘 할수록, 신체적 움직임이 활발할수록 공격적 행동을 더 보임을 알 수 있다. 공격을 예측하는 변인들의 설명력은 15%로 나타났다.

충동 변인에서는 성별($\beta = -.27, p < .001$), 적응성($\beta = .14, p < .05$), 활동성($\beta = .13, p < .05$) 순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여아에 비해 남아가, 적응성이 높을수록, 활동성이 높을수록 충동적인 행동을 많이 보임을 알 수 있었다. 충동을 예측하는 변인들의 설명력은 13%로 나타났다.

이상의 하위변인에 대한 관련 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소극적 부적응행동인 불안과 위축에서는 성별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적극적 부적응행동인 산만, 공격, 충동과 같은 행동에서는 성별의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나 남아가 여아보다 부적응행동이 더 많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유아의 기질 관련 변인이 유아의 부적응행동 총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유아의 성별($\beta = -.29, p < .001$), 활동성($\beta = .16, p < .05$)의 순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부적응행동 총점을 예측해 주는 변인들의 설명력은 13%였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유아의 성과 기질에 따라 유아교육기관에 다니는 유아의 부적응행동에 차이가 나타나는가를 살펴보고,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성과 기질이 유아의 부적응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은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상중하로 나눈 집단에 따라 유아의 부적응행동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양육태도 중 과보호 태도에서 상하집단에 따라 유아의 부적응행동 하위변인 중 불안행동과 위축행동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자녀를 과보호하는 태도를 취하는 어머니의 자녀가 유치원에서 적응을 잘 하지 못하였다는 권일선(1995), 권준희(1998), 장은혜(2000)의 연구와 비슷한 결과로 자녀에 대한 지나친 과보호는 엄마와 자녀만의 생활로 보호되어져서 가정 밖의 사회생활에 대한 두려움이 사회적 적응의 어려움을 가져오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과보호를 하기보다는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양육을 함으로써 자기 통제력 및 자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성별에 따른 유아의 부적응행동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남아가 여아에 비해 공격, 산만, 충동, 불안 하위변인에서 부적응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적응 양상에 성차가 있다고 밝힌 관련 선행연구(신경숙, 2002; 안선희, 2002; 이진숙, 2001; Birch & Ladd, 1997)들을 지지하는 것이다. 이는 여아에 비해 행동이 크고 거친 남아의 발달 특성이 교사의 인식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측해볼 수도 있으나, 남아가 부적응행동 특성면에서 여아보다 많은 문제를 갖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볼 때 교사는 유아기에 여아보다는 남아가 유아교육기관에서 적응에 어려움을 더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남아에게 더 많은 배려를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유아의 기질을 상중하 집단으로 나눠 유아의 부적응행동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기질 중 활동성과 적응성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활동성이 높을수록 유아는 산만행동과 같은 외현화 부적응행동을 더 많이 나타냈다. 이는 활동성 수준이 유아의 부적응행동과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는 박은영(2000), 임희수와 박성연(2001), 최지현(2001), 홍계옥(2001)의 연구를 지지해주는 것이다. 또한 적응성이 높을수록 불안이나 위축행동이 낮은 반면에 산만행동, 공격행동은 높게 보였는데, 김연, 한태숙, 정인희, 박연경, 황혜정, 구현아(2006), 김혜수(1995)의 보고를 지지해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측정된 활동성이 신체적 움직임이 활발한 정도라는 정의에 비추어 볼 때 행동이 크고 지나치게 활발할 경우 산만해 보일 수 있고 다른 유아들과의 충돌과 같은 부적응행동이 잦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적응성은 새로운 자극이나 변화에 대한 반응정도를 묻는 문항으로 이에 대한 높은 점수는 불안이나 위축과는 반대되는 행동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적응성이 높은 유아는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생활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또래에 대해 자기주장을 하는 과정에서 공격적인 행

동을 나타낼 수도 있으리라 본다. 앞으로 적응성과 산만, 공격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장기 종단적인 연구를 통해 이 관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넷째, 유아의 부적응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성과 기질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어머니의 양육태도변인이 유아의 부적응행동 하위변인과 전체 총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적응행동의 하위요인별로 영향력있는 변인이 다르게 나타났다. 부적응행동 전체점수에서는 성별, 활동성의 순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성별이 가장 영향력있는 변인으로 밝혀졌다. 여아보다는 남아가, 활동성이 높을수록 전반적인 부적응행동이 더 많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부적응행동 하위요인인 불안과 위축에는 적응성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적응력이 낮을수록 불안과 위축 정도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즉, 유아의 적응성이 떨어질 때 불안과 위축행동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으로서, 유아의 기질 중 적응성이 불안과 위축 부적응행동에서는 가장 중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음으로 산만요인에서는 성별, 활동성의 순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쳐 여아보다는 남아가, 활동성이 높을수록 산만 정도가 높음을 나타냈다. 공격요인에서는 성별, 적응성, 활동성의 순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여아보다는 남아가, 적응성과 활동성이 높을수록 공격적인 태도를 많이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 충동요인에서는 성별, 활동성, 적응성의 순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서 여아보다는 남아가, 활동성이 높고 적응을 잘 할수록 충동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만, 공격, 충동과 같은 외현화 부적응행동에서는 성별이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여 남아일 경우 산만하고 공격적이며 충동적인 부적응행동을 나타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음을 이해하고 성에 따라 세심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보겠다. 산만과 충동 하위요인에서는 활동성이 성별 다음으로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지만, 공격변인에서는 적응성이 더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나 부적응행동의 하위요인별로 기질의 하위요인들의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쉽게 간과될 수도 있는 유아의 부적응행동을 유아의 기질적 특성을 통해 유아기 또는 그 이후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외현화·내현화 부적응행동을 예측하고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결과를 기초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어머니의 과보호 양육태도와 유아의 부적응행동은 남아가 여아보다 높고, 기질의 하위변인인 반응성은 여아가 남아보다 높으며, 부적응행동 중 산만, 공격, 충동, 불안은 남

아가 여아보다 높다.

둘째, 어머니의 높은 과보호적 양육태도는 낮은 과보호 양육태도보다 유아로 하여금 불안과 위축의 부적응행동을 더 많이 나타내게 한다. 또한 기질 중 높은 활동성은 낮은 활동성보다 유아로 하여금 산만한 행동을 더 많이 나타내게 하고, 낮은 적응성은 불안과 위축행동을, 높은 적응성은 산만과 공격행동을 더 많이 나타내게 한다.

셋째,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유아의 부적응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유아의 성과 기질적 특성 중 활동성과 적응성은 유아의 부적응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상과 같은 논의와 결론을 통해 몇 가지 제언을 하면, 앞으로 이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활동성과 적응성과 같은 기질의 하위차원들이 아동기 이후까지 부적응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기질의 장기적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또한, 부적응행동이 심각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부적응행동의 영향력을 장기적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유아의 부적응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환경적 변수들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나 가정환경변인, 유아의 보육관련 조기 경험 등 다양한 변수들을 포함하여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 참고문헌

- 고명순(1997). 어머니의 취업과 아동의 사회성 발달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제주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교육인적자원부(2005). 교육통계연보.
- 권일선(1995). 어머니의 자아개념 및 양육태도가 유아의 유치원 적응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준희(1998).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 성신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동국(1980). 특수교육. 서울 : 배영사
- 김연, 한태숙, 정인희, 박연경, 황혜정, 구현아(2006).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양육태도, 기질, 인지능력, 사회적 능력 간의 구조모형 분석. 열린유아교육, 11(2), 229-250.
- 김영희(1996). 기질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적응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17(2), 19-32.
- 김인순(1991).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치원에서의 유아의 적응과의 관계연구.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정(2000). 유아교육기관 부적응 아동지도에 대한 교사의

- 인식 조사.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수(1995). 어머니와 교사가 인식한 유아의 기질과 유치원에서의 행동 및 적응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은영(2000). 영유아의 기질과 적응/부적응행동과의 관계. 대구효성카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수경(1993). 유아의 행동과 기질 및 성차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경숙(2002). 유아의 기질에 따른 사회적 기술과 교사-유아 관계. 호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안선희(2002). 유아의 유치원 초기 적응에 관한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9(1), 201-219.
- 여성가족부(2005). *영유아보육정책 보육통계*.
- 오승연(1993). 초등학교 아동의 충동성과 부적응행동 및 가정환경과의 관계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원영미(1990). 유아의 기질 및 관련변수와 유치원 아동의 적응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영의(1995). 부적응행동 유아에 대한 모래상자놀이 적용 사례연구. 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우영(1998). 유아의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 양육관련변인의 인과 관계.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주하, 이종희(1999). 걸음마기 아동의 문제행동과 보육교사의 어려움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0(2), 171-186.
- 이진숙(2001). 유아의 애착 표상과 교사-유아 관계 및 사회적 능력 간의 관계.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임희수, 박성연(2001). 어머니가 지각한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정서조절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조절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2(1), 37-54.
- 장은혜(2000).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기질이 유치원에서 유아의 초기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현희, 최경순(2001). 아동의 기질과 문제행동과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5), 1-14.
- 최지현(2001).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자기통제와의 관계.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계옥(2001). 어머니의 자기-지각, 양육행동 및 유아의 기질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 *아동학회지*, 22(2), 181-194.
- Baumrind, D. (1968). Authoritarian vs. authoritative parental control. *Adolescence*, 3, 255-272.
- Belsky, J., & Vondra, J. (1993). *Developmental origins of parenting: Personality and relationship factors*. In T. Luster, & L. Okagaki(Eds), *Parenting: An ecological perspective*, 227-250. Hliisdale, NJ: Lawrence Erlbaum.
- Berk, L. (1997). *Child development*(4th. ed). Boston, MA: Allyin and Bacon.
- Brich, S. H., & Ladd, G. W.(1997). The teacher-child relationship and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Psychology*, 35(1), 61-79.
- Davies, P., & Windles, M. (1997). Gender-specific pathways between maternal depressive symptoms, family discord, and adolescent adjustment. *Development psychology*, 33, 657-668.
- Dunn, J., & Kendrick, C. (1980). Studying temperament and parent-child intervention: Comparison of interview observation. *Developmental Medicine and Child Neurology*, 22, 484-496.
- Garrison W., Earls, J., & Kindlon, D. (1984). Temperament characteristics in the third year of life and behavior adjustment at school center.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3, 1023-1029.
- Glueck, S., & Glueck, E. (1950). *Unraveling juvenile delinquenc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Hallahan, D. P., & Kauffman, J. M. (1978). *Exceptional children: Introduction to special education*. Englesood Cliffs, New York: Prentice-Hall, Inc.
- Hughes, A., Pinkerton, G., & Plewis, I. (1979). Children's difficulties on starting infant school.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20, 187-196.
- Khaleque, A., & Rohner, R. P. (2002). Perceived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A meta-analysis of cross cultural and intercultural studi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 54-64.
- Klein, H. A. (1980). Early childhood group care: Predicting adjustment from individual temperament.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37, 125-131.
- Klein, H. A. (1982).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temperament and adjustment to kindergarten and head start settings. *The Journal of Psychology*, 112, 259-268.
- Koot, H. M., Van Den Oord E. J. C. G., Verhulst, F. C., & Boomsma, D. I. (1997). Behavior and

- emotional problems in young preschoolers: Cross-cultural testing of the validity of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5, 183-196.
- Lindahl, K. M. (1998). Family process variables and children's disruptive behavior problems. *Journal of Psychology*, 12, 420-436.
- Martin, J. A. (1981). A longitudinal study of the consequences of early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the Care*, 46(3), 56-68.
- Mattanah, J. F. (2001). Parental psychological autonomy and children's academic competence and behavior adjustment in late childhood: More than just limit-setting and warmth. *Merrill-palmer Quarterly*, 47, 355-376.
- Mobly, C. E., & Pullis, M. E. (1991). Temperament and behavioral adjustment in preschool children,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6, 557-586.
- Pettit, G. S., Harrist, A. W., Bates, J. E., & Dodge, K. A. (1991). Family interaction, social cognition and children's subsequent relations with peers at kindergarte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8, 383-402.
- Rubin, K. H., Hasting, P., Chen, X., Stewart, S., & McNichol, K. (1998). Interpersonal and maternal correlates of aggression, conflict, and externalizing problems in toddlers. *Child Development*, 69(6), 1614-1629.
- Wolfe, D. A., Scott, K., & Werkerle, C. (2003). Child maltreatment: Risk of adjustment problem and dating violence.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40(3), 282-289.

(2007년 1월 29일 접수, 2007년 5월 30일 채택)